권두시론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중근** | 경향신문 논설실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 경향신문 국제부·정치부 기자
  - 특집기획부장
  - 국제부장
  - 정치부장
  - 사회부장
  - 전략기획실장
  - 논설위원
- 관훈클럽 제66대 편집담당 운영위원

요즘처럼 언론인으로 일하기 힘든 적이 없었다. 초년병 시절은 물론 부장 때 격무에 시달리기는 했어도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매일같이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칼럼 집필 차례를 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언론계를 떠난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냐. 나 같았어도 힘들 것 같다"는 위로도 예사로 듣는다. 언론인 개인은 물론 언론계를 향해 덤터기로 쏟아지는 비판에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한다. 이는 언론인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기자 개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까지 나타나고 있다. 며칠 전 SBS 여기자가 리포트 도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협박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남성은 다짜고짜 "너, 누구지? 너의 정경심 보도가 짜증났다"고 했다고 한다. 언론(인)에 대한 감정이 비호감을 넘어서 증오가 아니고선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기자에 대한 공격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대된 것이다. '기레기'라는 모욕적 언사를 넘어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난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 진영 논리에 매몰된 언론, 비판을 거부하는 언론

우리 모두 언론에 대한 시민의 반감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김정은 사망설 보도만 보자. 1986년 김일성 사망설 오보가 다시 거론되면서 언론은 다시 한 번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CNN이 긴급뉴스로 보도했기에 망정이지 그마저 없었다면 한국 언론의 망신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기사의 기본을 어겼으니 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사후에도 언론의 문제의식은 그다지 심각한 것 같지 않다. 한 언론인은 사석에서 "북한 보도는 5번 오보하더라도 한 번 맞으면 그것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록 오보가 되더라도 정부와 시민의 대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시민이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을까? 북한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이런 보도가 안보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비무장 지대 내 GP 총격 사건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총격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길 문제는 아니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날 서게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 간 GDP 차이가 44배에 이르는 것을 무시한 채 총 4발을 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 과장이다. 또 이것을 우발적 사고라고 설명하는 군 당국에 대해 "왜 북한 편을 드느냐"고 질타하는 언론 보도는 난센스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만약 이런 공격이 정말 위협적이라면 시민이 그렇게 태평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권력감시는 언론 본연의 임무다. 하지만 비판의 수위는 그 오류의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비판이 합당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도를 넘은 찬양도 안 될 일이지만 과도한 권력 비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보도들이 독자를 지치게 하고, 언론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보수 쪽 입장에서 본다면 진보언론도 똑같지 않으냐고 비판할 수 있다.)

사실 완전한 객관 보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이 마치 지나가던 행인

이 우연히 어떤 현상을 보고 전하는 것처럼 객관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미 어떤 사안을 보도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거기에는 선택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처럼 객관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핑계 삼아 쉽게 그것을 버리는 순간 언론은 길을 잃는다. 어차피 객관이 존재할 수 없다면, 그리고 언론이 그를 구현할 방법이 없다면 주관을 개입시켜도 그만이라는 자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 언론이 딱 그 모습이다. 진영 논리에 빠진 보도가 국내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남북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 등과 중첩되면서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영 논리가 투영되고 있다. 사설란으로 옮겨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스트레이트 기사를 종종 지면에서 발견한다. 당파성이 강한 기사는 진영 내 큰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도 합리적 독자와 시청자로부터 언론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이런 보도가 언론의 평판을 갉아먹고, 궁극적으로 언론의 힘을 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객관 보도, 보도와 논평의 분리는 여전히 유효해

진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드문 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심지어 사실도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려는 태도는 언제나 옳다. 큰불이 났을 때 누군가는 양동이를 나르는 대신 높은 곳에 올라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 경우 화재를 뒷산에서 보는 것과 앞산에서 볼 때 불의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화재의 전개 상황이나 그 피해는 다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그 화재의 크기에 대해서조차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사실 보도로 건강한 여론의 장을 만든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 논평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진영 논리는 더욱 강화된다. 평화냐 전쟁이냐,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단순화한다면 제대로 된 토론은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객관 보도가 어렵고 의견이 강조되는 시대라지만 사실 보도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객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다

층적으로 기울이면서 사실을 넘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언론 작법의 기본이어야 한다. 보도의 영역과 논평의 영역을 구분하는 작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의 역할은 시민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준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언론은 시민이 인정하지 않는, 시민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할 권리가 없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사실을 진실에 가깝게 최대한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향유하는 언론자유에 대해 도덕적·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경기에 비유하면 언론은 심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언론이 심판의 역할을 벗어나 선수로 경기에 개입한다면 존중받기 어렵다.

KBS의 언론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J〉를 놓치지 않고 보려고 애쓴다.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분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자신들은 무오류이며, 마음껏 비판해도 된다는 듯한 태도도 불편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이 제4부라는 말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려면 외부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가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독자도 우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바른 언론이라면 스스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내가 늘 옳다고 믿는 순간 오류를 수정할 가능성은 없어진다. 과거 언론계에는 독자를 두려워하는 풍토가 분명 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비판을 외면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스스로 권력화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독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거부한 채 편향 보도를 강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 관훈클럽이 나서야 할 때

관훈클럽 임원진은 최근 몇 년에 걸쳐 언론의 정치편향 문제를 천착하고 해결·완화책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은 더디다. 사석에서는 이의 없이 동의하는 원칙이 각자 회사로 돌아가면 실행되지 않는다. 언론 현

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그것이 개별 회사의 이해를 뛰어넘어 보도에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 관훈클럽은 정치적 사안이나 편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 전통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전통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언론 생태계 전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언론인 모두가 왜 우리의 정치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든 보수든 가릴 것이 없다. 관훈클럽이 언론의 기본을 회복하는 일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당장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TF를 꾸려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원로나 퇴직 선배들이 주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훈클럽 창립회원들이 작금의 언론계를 보면 이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자신한다. 저널